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BSE)에 대한 제언

대한수의사회 회장 정영채

머릿말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위기의식과 국민식탁의 안전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히 어린학생들까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촛불을 들고 밤거리로 나오게 한 것은 우리 성인들이나 지도자들이 크게 자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았다.

그간 새 정부에서는 산티미처럼 쌓인 민생문제의 해결과 매끄럽지 못했던 국제관계 복원을 위하여 의욕적인 행보를 재촉해왔다. 일반 국민은 경제대통령, 일자리 창출대통령에 대한 성급한 기대, 또 지난 10년간 세금폭탄과 죄인시 되며 물락한 중산층의 성급한 기대도 오늘을 낳게한 원인(遠因)이고, 직접적으로는 한미FTA와 축산농가의 피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

한 국민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한편 광우병에 대하여 아직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해명됐거나, 완전하게 막아 낼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견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해(危害)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과학을 여론이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전제해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배경과 문제점

먼저 오늘과 같은 사태를 가져 온 배경은; 첫째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천정부지의 사료 값, 유류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값의 인상, 분뇨처리, 인건비상승, 설상가상으로 최근 AI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등등의 악재에, 한미 FTA 성사를 위하여 미국측이 조건으로 내 걸고 있는 쇠고기 수출에, 한국측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오늘 의 사태를 낳게 하였다고 본다.

둘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지난해 10월까지 정부는 30개월령 이하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며 살코기만을 수입했고, 조그만 뼈 조각이 포함 됐던 것이 검역을 중단하고, 금수조치까지 내려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국민은 정부를 신뢰했고, 30개월령 이하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것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게 되었다. 물론 이때도 일본이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대하여 형평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양해가 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4월 협상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지금까지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한편 협상과 그 내용에 대한 의문점으로 ; 첫째는 한미간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했을때는 우리측은 협상에 응하였으나, 미국측은 왜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또 우리는 왜 협상을 다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는 추가협상에서 SRM부위가 추가되었다고하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 내용인가? 도축검사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일인지와, 수입된 부분육의 검사에서 제외된 97%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는 동물성 사료의 급여금지, SRM 부위의 추가, 수입부분육에 대한 3%검역, 현지 도축장 방문단의 설명, 광우병은 없어질 질병이라고 하는데도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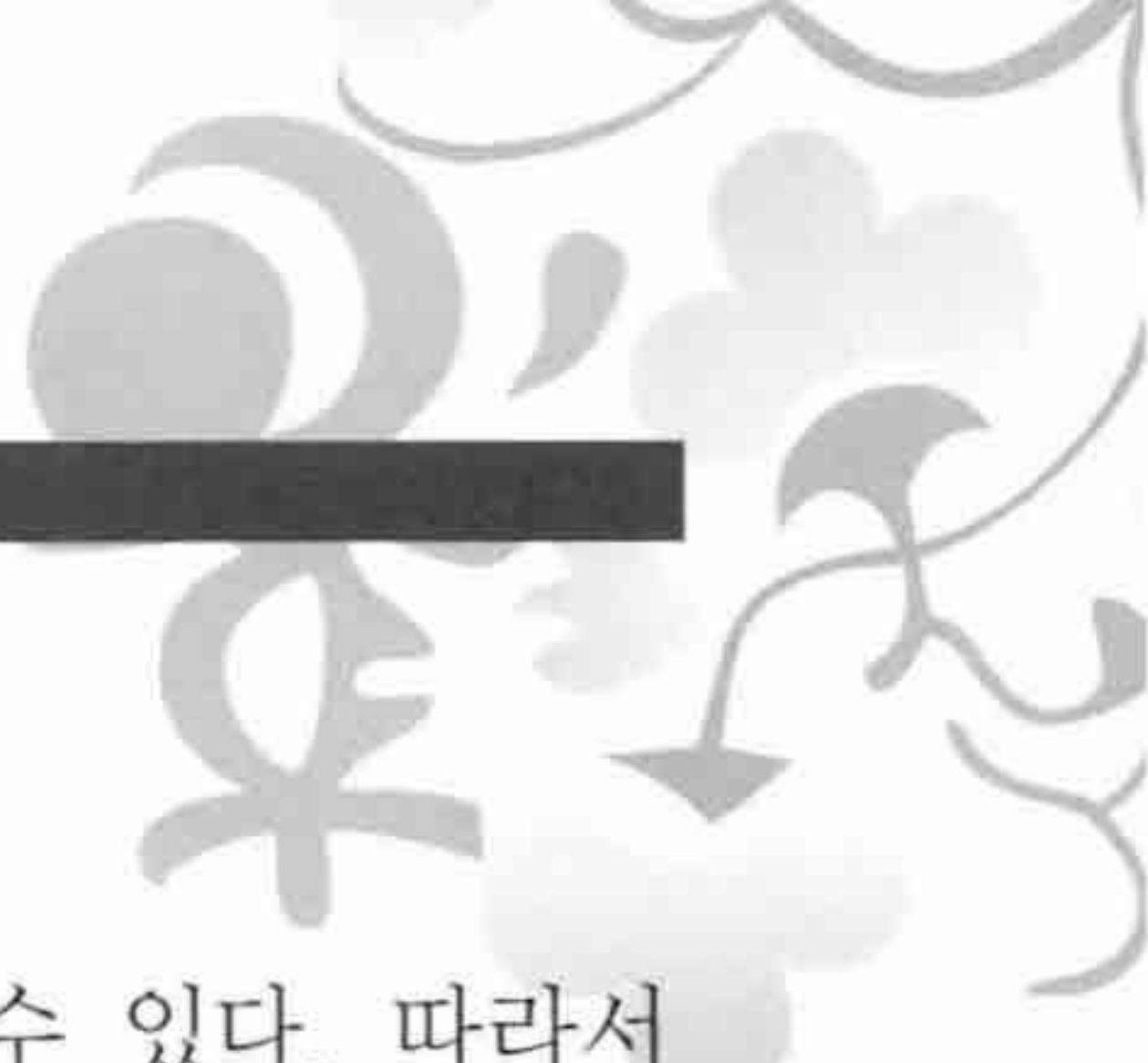
대책과 해결방안

정부는 현재 협상의 무효화도 재협상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오늘의 이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방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회피요, 죄인이 되는 길이다. 인적 쇄신이나 책임을 묻는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국민을 안심 시킴으로서 난국을 타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나는 두 가지로 나누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하나는 대 축산농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다.

첫째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다; 직접적으로는 쇠고기 수입, 크게는 한미 FTA가 축산농가와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축산농가나 농민에 대하여 정부는 일방적인 제시나 지시로 설득하고 이해시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 말라. 힘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 농가와 무릎을 맞대고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크고 많은 것을 주는 것 보다 상호 이해와 합의가 더 값진 결과를 가져다준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는 97%에 대한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 무작위 표본 추출(random sampling)은 일반적인 상황이나 연구목적으로



자료(data)를 얻고자 할 때 도입되는 방법이다. 현 상태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② SRM 추가제거에 대하여, 머리부분(두부·頭部)에서; 뇌(腦), 눈, 삼차신경절, 편도 등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려면 머리를 거의 파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머리 전체를 제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척추(脊椎)에서; 척수(脊髓), 신경절, 횡돌기, 극돌기, 천추의 천골능선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추(꼬리뼈)를 제외한 척수와 척주(脊柱)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척수와 척주 전체를 제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장(小腸)의 끝부분 제거에 대하여; 소장의 끝부분은 회장(廻腸)이다. 회장은 공장, 맹장, 결장과 연결된다. 또 도축 검사시 내장(內臟)중 창자(장·腸)는 천자하거나 절단 또는 절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천자, 절단 또는 절개할 경우 소화내용물이 흘러나와 다른 부위에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장간막·腸間膜 포함)를 함께 이용 또는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③ 우리나라에서 도축되는 소에 대하여 전두수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한다.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나 논의의 결과에 따르는것이 좋을것 같다. ④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도축장의 수를 최소화 하고, 우리나라 검역관이 현지 도축장에 파견되어 도축되는 소를 전두수 검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권리의 행위라고 판단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측에서든 감수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할 경우 SRM에대한 부정확한 제거에 의한 불신을 해소하고, 제거되어 불용되

는 SRM까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의 부담도 크게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 일본이나 영국에서 광우병의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축되는 소에 대하여 전두수 광우병 검사 등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일본은 광우병 발생 후 일본에서도 도축되는 소에 대하여 전두수 검사를 위하여 연간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도축장의 검사원도 대폭 증가시켰으며, 이력 추적제 등도 철저하게 개선하였다고 한다. 광우병 검사에 필요한 키트는 현재 몇 가지 종류가 소개되고 있는데 현재 마리당 20~25불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검사하는데는 90분내지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는 이 키트를 이용하여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내에서 육우와 유우의 사육 조건과 20개월령과 30개월령에 대한 논란의 배경도 간과해서는 않된다.

끝으로 정부는 얼마 전 정부조직의 개편을 단행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위생안전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식품위생안전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 일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에 대하여 몇%를 올리고 내리는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을 우려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소모성 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국민을 안심시켜 국론을 통합 하는 것보다 더 우선 할 일은 없다고 본다. **대V수**